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3/9~3/13]

“유가 90 달러 돌파, 코스피 흔들다 ... 이번 주 진짜 살 종목은?”

- 상승 추세 재개보다 변동성 관리와 주도주 재정비가 더 중요
- 주 초반 방어, 주 후반 선별 매수가 적절
- 반도체, 방산, 에너지·정유, 원전·전력·재생에너지 및 코스닥 등 유망

변동성 관리와 주도주 재정비

“상승 추세 재개”보다 “변동성 관리와 주도주 재정비”가 더 중요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상승 추세 재개”보다 “변동성 관리와 주도주 재정비”가 더 중요한 구간이다. 중동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면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2 월 CPI, 오라클, 어도비 실적,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겹쳐 단기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한 주간이 될 전망이다.

금주 핵심 주제 3 가지

- 금주 핵심 주제 3 가지:
- 1) 유가 급등 부담
 - 2) 반도체 업종 중심 주도
 - 3)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첫째, 유가 급등이 한국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점이다. 미국-이란간 전쟁으로 공급 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하고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 전쟁 장기화 시 저유가가 제공하던 실적, 유동성 조합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반도체는 변동성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 주도 업종이라는 점이다. DRAM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장기화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한국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방산, 반도체, 건설기계, 의류 등을 업종을 비중확대 제시한다. **셋째**, 코스닥은 정책과 신규 상품 수급에 의해 상대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코스닥 머니무브 지속 여부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주 초반 방어, 주 후반 선별 매수”가 적절

- 주 초반 방어 업종 선별
주 후반 선별 매수 전략

전략적 스탠스는 “주 초반 방어, 주 후반 선별 매수”가 적절하다. 주 초반에는 유가와 CPI 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 방산, 정유, 에너지 같은 헤지 성격 업종 비중을 잘 유지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가가 안정되거나 전쟁 강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반도체와 코스닥 성장주, 그리고 정책·수급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유가 안정 시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전쟁 리스크에 따른 조정을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과 정책 동력을 감안한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시장 전체보다 업종간 옥석 가리기

금주, 반도체, 방산, 에너지·정유, 원전·전력·재생에너지 및 코스닥

반도체, 방산, 에너지·정유, 원전·전력·재생에너지, 그리고 코스닥 선택형 성장주이다. 반면 호텔·레저, 유틸리티, 필수소비, 미디어 등은 전쟁 리스크 변동성에 취약하기에, 지난 한 주 업종 등락률에서도 전기·가스, 유통, 전기·전자, IT 서비스 등이 약세였다. 따라서 이번 주는 “시장 전체 매수”보다 “업종 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하다

[주요 이슈 5 가지]

국제유가 방향성	첫째, 미국-이란 전쟁 뉴스 플로우와 국제유가 방향성이다. 유가와 전쟁 뉴스가 이번 주 최대 변수라 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과 유가 급등 및 변동성이 국내 주식시장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미국 2월 CPI	둘째, 미국 2월 CPI 이다. 3월 11일 발표 예정이며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2.5%, 코어 CPI는 2.4%이다.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 연준 인하 기대 약화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오라클 실적 발표	셋째, 오라클과 어도비 실적이다. 오라클은 11일, 어도비는 13일 실적 발표할 예정이며 AI 소프트웨어 수익성 및 Capex, 수주잔고 등을 점검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특히 오라클 실적은 AI 부채 건전성과 비용 우려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액티브 코스닥 ETF	넷째, 국내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와 코스닥 머니무브이다. 금주에는 삼성액티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등의 액티브 코스닥 ETF 출시 등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코스닥으로의 자금 이동이 지속되는 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선물, 옵션 동기만기	다섯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인터배터리 2026 이다. 선물, 옵션은 3월 12일 동시 만기이며, 3/11~13일 인터배터리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차전지와 지수 수급 양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대기되어 있다.

[상승, 하락, 변수 요인]

상승 요인	금주 상승요인은 1) 유가 안정 또는 전쟁 강도 완화 가능성이다. 미국의 유화책, 전략비축유 방출, 호르무즈 해협 호위 등 유가가 안정되면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 2) 반도체 이익상향과 DRAM 가격 상승이다. DRAM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장기화 등으로 반도체 업종은 중,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3) 정책, 수급 모멘텀이다.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정부의 코스닥 정상화 정책 기대 등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하락 요인	하락 요인은 1) 유가 급등에 상품 가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다. 유가 급등 → 인플레이션 재점화 →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을 야기하고, 원유 공급 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장에 구조적으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고용 둔화와 경기 우려이다. 2월 비농업고용 -9.2만명 쇼크와 실업률 4.4% 기록 등은 미국 고용 질 둔화와 소매판매 부진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국내 수급 압박과 반대매매 후유증이다. 2/27~3/6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14조원과 리밸런싱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한 주 외국인 -7조원, 기관 -4.3조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수 요인	변수 요인으로는 1) 미국 CPI와 PCE 이다. 헤드라인보다 코어, 그리고 유가 상승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 반응이 중요하다. 2) 오라클, 어도비 실적이다. AI 투자 스토리가 실적과 가이던스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이후 수급 지속 여부이다. 재료 소멸이나, 구조적 자금 유입이나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상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반도체, 방산, 원전 및 액티브 코스닥	이번 주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 방산, 에너지·정유, 원전·전력·재생에너지, 선별적 코스닥 성장주가 투자 유망하다. 반도체는 이익상향과 DRAM 가격 상승이 확인되고 있고, 방산은 중동 지정학 수혜와 천공-II 초기 공급 모멘텀이 존재한다. 에너지·정유는 유가 상승의 직접 수혜 구간이며, 원전·전력·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원 다변화 논리, 정부·해외 프로젝트 기대가 결합되어 있다. 코스닥은 액티브 ETF 출시와 정책 기대를 바탕으로 상대 강세 여지가 있으나 종목 차별화가 강할 전망이다.
------------------------------	--

[주요 관심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114,075.9	188,200	-13.07
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	62,775.0	98,000	-7.81
042660	한화오션	조선	38,822.6	126,700	-10.27
005490	POSCO홀딩스	철강	28,609.8	353,500	-14.41
322000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에너지	1,311.5	117,100	+12.60
475150	SK이터닉스	에너지	921.5	27,300	-5.21
327260	RF머트리얼즈	상사,자본재	438.1	51,900	+21.26
035420	NAVER	소프트웨어	34,899.7	222,500	-12.57
251270	넷마블	소프트웨어	4,425.9	54,000	+2.66
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사,자본재	12,895.1	73,300	+1.52

자료: 독립리서치 핀릿

관심 종목

- 1) 삼성전자(005930):** DRAM 가격 상승과 NAND 업황 개선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2026 년 최대 실적 경신 전망과 AI 수요 유지 등이 삼성전자에 주가에 긍정적 작용
- 2) 두산에너지빌리티(034020):**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및 대미투자 원전 건설 이슈 부각
- 3) 한화오션(042660):** 미국 조선소 선점과 인프라 확장이 향후 특수선 수주 우위로 이어질 가능성과 조선 섹터 전반의 LNG 선 발주 가능성
- 4) POSCO 홀딩스(005490):** 자회사 실적 개선, 수입산 철강 규제와 중국 생산 규제 수혜와 유가·원자재 변동성 국면에서 실적 회복형 철강 대형주
- 5) HD 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국내 태양광 시장과 재생에너지 정책 모멘텀과 원전, 태양광, 풍력 강세 테마주
- 6) SK 이터닉스(475150):** 재생에너지·전력원 다변화 수혜 및 태양광 중심 수요 증가 등 기대
- 7) RF 머트리얼즈(327260):**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 수요 급증과 중국산 부품 제재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 반도체 본체보다 AI 인프라 확산의 주변 수혜주로 분류
- 8) NAVER(035420):** 두나무 합병에 따른 리레이팅 시나리오 및 개별 구조개편 모멘텀 기대
- 9) 넷마블(251270):** '7 대죄 오리진'과 2분기 '몬길' 등 신작 기대감
- 1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 미얀마 가스전 판매 증가, 팜·정제 사업 확대로 에너지와 식량 두 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가격 변수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 11) 알지노믹스(476830):** 3/18 AACR 초록 공개 이벤트가 임박해 있어 이벤트 드리븐 관점 종목으로, 헬스케어 섹터는 유가 상승·경기 피크아웃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 업종

[결론]

변동성을 이용한
주도주와 방어주 분리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지수 추격 매수할 주간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 주도주와 방어주를 분리해서 담는 주간이다.

첫째, 주 초반에는 유가와 CPI 를 확인하기 전까지 방산·정유·에너지·원전 같은 해지 성격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반도체는 흔들릴수록 핵심 비중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다만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 접근이 우선이며, 소부장은 수급을 확인 후 확장하는 편이 유효할 전망이다. **셋째**, 코스닥은 정책·ETF 모멘텀이 있으나 무차별 매수보다 “정책 수혜 + 실적/이벤트 + 수급”이 겹치는 종목만 선별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여기에는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광통신, 일부 게임·바이오가 그 후보군이다.

즉 이번 주 스탠스는 방어적으로 시작하되, 유가 안정과 CPI 확인 이후 반도체, 원전·재생에너지, 선별 코스닥으로 단계적 매수 전환이 가장 합리적이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지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전쟁에서처럼 뉴스가 많은 주간에 살아남는 업종과 실적이 버터주는 종목을 선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표 1]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국가	이벤트	예측	이전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USD	기존주택판매 (2월)	3.89M	3.91M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USD	소비자물가지수 (MoM) (2월)	0.3%	0.2%
USD	소비자물가지수 (YoY) (2월)	2.5%	2.4%
USD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2월)	0.2%	0.3%
USD	원유재고		3.475M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USD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6K	213K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USD	GDP (QoQ) (3분기)	1.4%	4.3%
USD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1월)	0.4%	0.4%
USD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YoY) (1월)	3.1%	3.0%
USD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1월)	6.840M	6.542M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성장은 식고 있으나,
물가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의 핵심은 헤드라인 CPI 의 소폭 재 상승 가능성, 근원 CPI 의 둔화 여부, 근원 PCE 의 높은 수준 유지, 그리고 JOLTS 의 반등 예상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에 있다. 시장에서는 2 월 CPI 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로 직전보다 소폭 높아진다. 반면 근원 CPI 는 전월 대비 0.2%로 직전 0.3%보다 낮아진다. 이는 에너지 등 변동성 큰 항목이 헤드라인을 끌어올리되, 기초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그림을 뜻한다. 그럼에도 주에 발표되는 1 월 근원 PCE 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1%로 직전보다 높게 제시되어 있어,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기준에서는 오히려 “디스 인플레이션 정체” 해석이 가능하다.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는 다소 복합적이다. JOLTS 구인건수는 6.542M 에서 6.840M 으로 반등이 예상되어 노동수요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림이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도 213K 에서 216K 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시장은 급랭도 아니고 재과열도 아닌 완만한 둔화·안정 구간으로 읽힌다. 동시에 3 분기 GDP 가 4.3%에서 1.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제시된 점, 성장 모멘텀이 이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 미국 경제는 “성장은 식고 있으나, 물가는 아직 연준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며, 고용은 생각보다 버티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준의 빠른 추가 완화 기대를 제약하면서도,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를 남겨 놓는 전형적인 혼합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

[표 2] 미국 주요 종목 실적 발표 일정

일자	회사명 (티커)	핵심포인트
3/9 (월)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AI 서버-데이터센터 장비 수요가 기업 IT 투자 사이클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다.
3/10 (화)	오라클(ORCL)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와 OCI 성장률이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결정한다.
3/11 (수)	캠벨스(CPB)	식품 가격 전가력과 소비 안정성이 방어적 소비 구조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12(목)	어도비(ADBE)	생성형 AI 기능이 실제 구독 매출 성장과 ARPU 상승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이다.
	달러제너럴(DG)	저소득 소비층의 생활 소비 흐름이 경기 체감도를 반영한다.
	울타뷰티(ULTA)	중상위 소비자의 뷰티 소비 지속 여부가 소비 심리 강도를 보여준다.
	레나(LEN)	주택 수요와 모기지 금리 영향이 미국 부동산 경기 방향을 가늠한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클라우드·AI 소프트웨어(오라클(ORCL), 어도비(ADBE)), 엔터프라이즈 IT 인프라(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소비·리테일(달러제너럴(DG), 울타뷰티(ULTA)), 주택, 건설(레나(LEN)), 필수 소비재(Campbell's(CPB)) 등 서로 다른 경기 민감도를 가진 산업이 동시에 발표되는 구간이다.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금융투자분석사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